베테랑 삼총사, 그들이 있어 행복했다

사커 토픽

정조국 K리그 득점왕·MVP로 부활
염기훈도 FA컵 MVP로 진가 뽐내
최고령 이동국은 27경기 12골 건재

정조국 염기훈 이동국

K리그 클래식(1부리그)도, FA컵도 마무리됐다. 전북현대가 2016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자격으로 일본에서 열리는 2016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8~18일)을 앞두고 있지만, 사실상 한국축구는 3일 수원삼성-FC서울의 FA컵 결승 2차전을 끝으로 올해 일정을 마감했다.

2016년은 베테랑들이 빛난 한 해였다. 클래식 우승은 서울의 몫이었지만, 최우수선수(MVP)의 영광은 정조국(32·광주FC)에게 돌아갔다. 2003년 19세의 나이로 K리그 신인왕을 수상했던 정조국은 한때 '패트리어트'라는 별명을 얻으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러나 서울에 몸담은 지난해까지 최근 수년 동안은 출장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할 정도로 '잊혀진 존재'가 됐다. 올 시즌을 앞두고 광주로 이적해 '20골 득점왕'으로 재탄생했다. 베스트11과 MVP도 거머쥐며 3관왕으로 생애 최고의 한 해를 만들었다. "'한물 갔다'는 평가에 반론조차 할 수 없는 내 자신이 미웠다"고 힘겨운 시절을 되돌아본 그의 소회는 많은 팬들을 뭉클하게 했고, 최고 자리에 우뚝 선 정조국의 부활은 실의에 빠진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됐다.

2012년 스플릿 라운드 도입 이후 처음으로 그룹B(7~12위) 추락이란 아픔을 맛본 수원은 FA컵 우승으로 6년 만에 국내대회 타이틀을 차지했다. 그 중심에는 FA컵 MVP로 선정된 염기훈(33)이 자리 잡고 있다. 염기훈은 결승 1차전에서 결승골을 터트리고, 주장으로서 그라운드 안팎에서 팀의 기둥 역할을 했다. FA컵뿐 아니라 클래식에서도 베테랑의 진가를 뽐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도움왕에 등극하며 '택배의 달인'이란 명성을 이어갔다.

'베테랑 파워'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또 있다. K리그 최고령인 이동국(37·전북)이다. 올해 클래식 27경기에 출전해 12골을 뽑아내며 변함없는 실력을 과시했을 뿐 아니라, 챔피언스리그에서도 통산 32골로 역대 최다골을 기록 중이다. 그는 "월드컵 출전보다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힘들다"는 말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대한 간절함을 내비쳤는데, 결국 전북 유니폼을 입고 그 바람을 이뤘다. 주연을 고집하지 않고, 팀과 후배들을 위한 '아름다운 조연'을 택한 이동국의 모습은 또 다른 감동을 선사했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아우크스부르크 지동원(오른쪽 끝)이 5일(한국시간) WWK 아레나에서 벌어진 프랑크푸르트와의 2016~2017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13라운드 홈경기에서 0-1로 뒤진 후반 34분 동점골을 터트렸다. 지동원이 동료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사진출처 | 아우크스부르크 공식 페이스북

지동원 리그 2호골 '아우크스부르크의 구세주'

분데스리가 리포트

프랑크푸르트전 선발출장 동점골
'공격수 줄부상' 팀에 귀중한 승점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한국선수들의 활약상이 잠잠해지던 가운데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 한국 팬들에게 전해졌다.

아우크스부르크는 5일(한국시간) WWK 아레나에서 벌어진 2016~2017시즌 분데스리가 13라운드 홈경기에서 프랑크푸르트와 1대1로 비겼다. 아우크스부르크의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출장한 지동원(25)은 후반 34분 올 시즌 3호 골이자, 리그 2호 골을 터트리며 팀을 패배 위기에서 구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3승5무5패(승점 14)로 12위, 프랑크푸르트는 7승4무2패(승점 25)로 5위가 됐다.

올 시즌 아우크스부르크는 공격수들의 줄 부상 속에 공격 옵션이 별로 없는 처지로 내몰렸다. 이에 아우크스부르크 디어크 슈스터 감독은 지동원을 선택해 꾸준히 출장 기회를 부여해왔다. 지동원은 특히 알프레드 핀보가손의 부상으로 공백이 생긴 원톱 자리에 들어가 선발출장 횟수를 늘려가며 리그에선 10월 1일 라이프치히전 동점골, DFB(독일축구협회) 포칼에선 10월 27일 바이에른 뮌헨전 만회골 등 소위 '잘 나가는' 팀들을 상대로 강한 면모를 발휘해왔다.

지동원의 커리어에서 흥미로운 점은 강팀을 맞아 인상적 활약을 보인다는 데 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 시절에는 첼시를 상대로 데뷔골을 신고했고, 맨체스터시티전에서 기록한 '극장골'은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팬들의 기억에 남아있다. 분데스리가로 이적해서도 2013~2014시즌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골을 터트리며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바 있다. 당시 도르트문트는 현재 리버풀 사령탑인 위르겐 클롭이 이끌며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다. 이 경기로 지동원은 분데스리가 '이 주의 선수'로도 이름을 올렸고, 다음 시즌 아우크스부르크를 떠나 잠시 도르트문트 유니폼을 입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시즌까지는 출전 기회도 적었고, 활약상도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았다. 올 시즌에는 감독의 신뢰를 바탕으로 출전을 보장받고 있고, 본인도 라이프치히전에서 시즌 첫 골을 뽑으면서 자신감을 얻었다. 다만 카이우비, 라울 보바디야, 핀보가손, 그리고 아우크스부르크 공격의 핵 구자철(27)까지 모조리 부상으로 빠져 공격 자원이 부족한 상태다. 지동원도 최근 스포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동료들이 빨리 부상에서 돌아와 같이 뛰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행히 구자철이 회복에 진전을 보이고 있고, 다른 선수들의 재활 소식도 들리고 있다.

이제 아우크스부르크는 10일 함부르크와 원정경기를 치른다. 프랑크푸르트전에서 팀을 구한 지동원이 함부르크전에서 연속골을 성공시킬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퀼른(독일) | 윤영신 통신원

'성폭행 혐의' 축구선수 불구속 입건

서울 종로경찰서는 5일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축구선수 A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는 SNS를 통해 만난 여대생 B를 3월과 4월 자신의 오피스텔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는 경찰 조사에서 B와 교제하던 사이라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여성의 진술을 통해 강제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보낼 방침이다. 국군체육부대에 합격한 A는 이날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했다.

황선홍·최용수 감독, 1000만원씩 기부

한국OB축구회(회장 김정남)는 FC서울 황선홍 감독, 중국 장쑤 쑤닝 최용수 감독, 축구사랑나눔재단이 원로축구인들의 복지를 위해 써달라며 각기 1000만원씩을 기부했다고 5일 밝혔다. 김정남 OB회장은 "두 지도자와 축구사랑나눔재단의 도움에 감사 드린다. 총 3000만원의 성금은 생활이 어렵거나 노환으로 병원 치료 중인 축구원로들을 위해 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편집 |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수원 골키퍼 양형모는 'K리그 신데렐라'

용인시청 1년 임대 후 올시즌 복귀
6월 클래식 데뷔…FA컵 결승 맹활약

양형모

수원삼성이 '2016 KEB하나은행 FA컵' 정상에 서는 데는 골키퍼 양형모(25·185cm)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FC서울과의 FA컵 결승 1·2차전에 모두 선발출전한 그는 총 3골을 내줬지만, 플레이 자체는 발군이었다. 실점과 다름없는 장면에서 수차례 선방을 펼쳐 우승에 기여했다. 2차전 연장 이후 승부차기에선 직접 키커로 나서서 마지막 골을 성공시키며 승부에 마침표까지 찍었다. 올해가 프로 데뷔해나 마찬가지였던 그는 '신데렐라 스토리'를 만들어냈다.

2014년 수원에 입단한 양형모는 한 경기에도 출전하지 못한 채 2015년 실업축구 내셔널리그 용인시청으로 1년간 임대됐다. 올해 수원으로 복귀해서도 시즌 초반 어려움을 겪었다. 팀에도 새롭게 적응해야 했고, 축구 수준도 달랐다. 5월 11일 FA컵 32강전이 반전의 계기가 됐다. 양형모는 "꾸준하게 준비는 했는데 FA컵에서 기회가 찾아왔다. 상대는 내셔널리그의 한국수력원자력이었다. 그 경기에서 자신감을 찾았다. 신범철 코치님 덕분이었다"고 밝혔다.

양형모는 이어 K리그 클래식(1부리그) 무대에도 서게 됐다. 6월 11일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를 통해 클래식 데뷔전을 치렀다. 경험이 없다보니 실수도 많았지만, 괜찮은 활약을 보여준 덕분에 출전 기회가 눈에 띄게 늘었다. 그는 "경험이 없어서 한 경기 한 경기에만 집중했다. 그 때문인지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다. 8월쯤에는 평소 몸무게보다 5kg이나 빠졌다. 체력적으로 버티지 못해 다시 벤치로 물러나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형모는 올해 가장 중요한 무대에서 다시 선발 기회를 잡았다. 그리고는 팀의 우승에 결정적으로 이바지했다. 양형모는 "1차전을 이겼지만 사실은 실수가 많았다. 그래서 2차전에 '못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기회를 또 주셨다.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나섰는데 결말이 좋았다. 운이 따라준 것 같다"며 웃었다.

수원이라는 빅클럽의 주전 골키퍼 자리는 부담이 크다. 그러나 양형모는 이를 잘 받아들이고 있었다. "좋은 부담이다.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보고 싶어 하는 부담감이다. 그걸 올해 경험했다"는 그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잘해야 한다. 공중볼 약점도 극복해야 하고, 기복도 줄여야 한다"며 "올해보다 나은 내년을 보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성남 박경훈 감독 "2년 안에 클래식 승격"

확실한 목표가 있는 팀서 도전

박경훈 감독

"챌린지에선 우승이 아니면 의미가 없지 않나."

박경훈(55) 감독이 K리그 챌린지(2부리그)로 강등된 성남FC를 구하기 위해 지휘봉을 잡았다. 성남은 1일 공석이던 사령탑 자리에 박 신임 감독의 임명 사실을 밝혔다.

2014년 클래식(1부리그) 일정을 마친 뒤 제주 유나이티드 지휘봉을 내려놓았던 박 감독은 올 7월부터 성남의 선수강화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일선에서 물러난 뒤 2년간 전주대학교 축구학과 교수로 재직해온 그는 현대축구의 흐름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왔다. 박 감독은 "현대축구는 공수전환이 빠르기 때문에 스피드가 중요하다. 볼을 상대에게 빼앗겼을 때의 전환, 반대로 볼을 빼앗았을 때의 전환이 매우 빠르게 이어지는 것이 현대축구의 흐름이다"고 설명했다.

안정적인 교수직을 내놓기까지 많은 고민이 뒤따랐다. 그러나 올해 클래식 11위(11승10무17패·승점 43)에 이어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강원FC에 밀려 내년 챌린지로 강등된 성남은 '승격'이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는 팀이다. 박 감독은 결국 안정보다 도전을 택했다. 그는 "챌린지 팀이라는 점이 큰 부담이었다"고 운을 뗀 뒤 "고민이 많았지만, 도전을 택했다. 2년 동안 연구했던 것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내 지도자 인생에서 마지막 감독 자리라 생각하고 있다. 기대 반 걱정 반이다"고 말했다.

박 감독은 2년 내 클래식 승격을 목표로 내걸었다. 그는 "챌린지는 우승이 아니면 의미가 없지 않나. 2년 안에 클래식 승격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전남 노상래 감독, 새 시즌 구상 끝

자일-유고비치-토미 팀전력 그대로
P급 라이선스 자격교육 공백 최소화

노상래 감독

K리그 클래식(1부리그) 전남 드래곤즈의 올 시즌은 '기대한 만큼' 이뤄졌다. 지난달 막을 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6'을 5위(12승11무15패·승점 47)로 마감했다. 비록 최대 목표로 삼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은 놓쳤지만 충분히 선전했다.

물론 아쉬움도 있었다. 뜻하지 않은 '바지 감독' 논란을 겪은 탓이다. 10월 AFC가 '2017시즌 챔피언스리그 출전 자격'으로 P급 라이선스를 소지한 사령탑만 벤치에 앉아야 한다고 최종 공지하면서 전남에도 불똥이 떨어졌다. 이 때만 해도 전남은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할 가능성이 열려있어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했다.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은 '임시 사령탑' 선임이었다. 결국 송경섭(45) 감독이 새로 지휘봉을 잡고, 노상래(46) 감독이 수석코치로 내려앉았다.

'대행 체제'였으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바지 감독'이란 표현까지 등장했다. 이후 회원국들의 불만이 쇄도하자 AFC가 규정을 완화해 취득에만 2년이 걸리는 P급 라이선스 소지자뿐 아니라 교육생까지 인정하자, 지금은 기존 체제로 전환했다. 그래도 노 감독에게는 아주 머쓱한 상황이었다. "선수들에게 정말 미안했다. 진작 대처하지 못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선수들이) 노력한 공로를 (내 자격증 문제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면도 크다."

노 감독은 9일부터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진행될 1차 교육에 참석할 계획이다. 당초 코치 신분이던 2014년 말 교육을 받으려다 하석주 전 감독(아주대)과 바통터치를 하면서 교육기간을 놓쳐 지금에 이르렀다.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하지만, 큰 문제는 없다. 이미 노 감독은 새 시즌 구상을 거의 끝냈다. 큰 틀은 유지하되 부분적인 변화만 가미할 생각이다.

자일(브라질)-유고비치(크로아티아)-토미(호주) 등 기존 외국인선수 3총사와 최효진-현영민의 베테랑 콤비는 내년에도 팀의 중심으로 남을 전망이다. 외국인선수 1명을 추가 보강한다. 노 감독은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감독과 전남은 제주도에서 1차 훈련을 소화한 뒤 일본 오키나와에서 담금질을 이어갈 예정이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